

주일 예배 순서

- 성령강림 후 제19주 -

- 조용한 기도(Silent Prayer) 시 123:1-2 다함께
- 찬 송(Opening Hymn) 35장(새 298장) 다함께
- 교독문(Responsive Reading) 새 41번(스크린참조) 다함께
- 공동기도(Prayer) 다함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존귀한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시어 사감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립니다. 거룩하신 주님 앞에 감히 설 수도 없었던 저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 담대히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저희의 허물과 죄를 회개하오니 긍휼을 베푸사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어 주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사랑을 만물과 상황과 환경을 통해 보게 하여 주옵소서.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과 사람들이 하는 말을 통해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인생이 길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분초와 같으니, 짧은 인생을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헛된 욕망과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주를 향한 거룩한 열정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에 사로잡힌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이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어, 하루하루를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으로 채워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임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오며 구주와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사도신경(Apostles Creed) 다함께
- 성경봉독(Scripture) 마태복음 7:7-12 인도자
- 말씀증언(Sermon) 이송원 목사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 봉 헌(offering) 359장(새 325장) 다함께
- 환영과 소식(Welcome/Announcements) 인도자
- 찬 송(Hymn) 새 466장(스크린참조) 다함께
- 축도(Benediction) 이송원 목사

교회 소식

1.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 애찬이 준비되어 있으니 함께 사랑의 교제 나누시길 바랍니다.
2. 다음 주 친교 후 12:30분에 믿음속 모임이 있습니다. 속회적용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속장 : 송현진, 속원 : 김연진, 김영희, 김희상, 석명선, 신성화/박인숙, 송금자, 유동진/이진옥, 이경자, 이진국/김성애, 정태욱, 허춘희)
3. 교우동정
- 담임목사님 노회참석 및 보스톤 방문 : 10월 9일(월) - 12일(목)

<기도제목>

- 세계 각국에서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
- 미 연합감리교회(UMC)가 회개와 순종을 통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 담임목사님이 성령충만한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 한마당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며, 기도와 교제와 예배를 통해 믿음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로 함께 세워지도록.
- 영어권 사역이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 치유와 회복을 위해
(박현숙성도님, 허영희성도님 시어머님, 캄보디아 조동천선교사님)

<이 달의 속회 적용점> 마태복음 18:21-35

우리는 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처럼 값을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아직 내 안에서 용서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않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생각해 봅시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당사자를 만날 수 없는 경우에는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관계를 회복합니다. 만날 수 있는 경우에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 당사자와 직접 만나 용서와 화해를 통해 관계를 회복합니다.

<말씀묵상> 마태복음 7:7-12

7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8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9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10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11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12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1.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까? (7-11절)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2.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 나는 항상 이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고 있습니까?

❖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인간다움을 느끼는 가장 근본적인 감정은 자존감인데, 이것은 자신이 누군가에게 소중하고 고귀한 존재로 여김을 받고 있다는 걸 느끼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자존감을 잃어버린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상대방을 존중하기보다는 그를 누르더라도 자신이 높여지길 바라고 때문입니다. 존중은 누구를 높이거나 자신을 일방적으로 낮추기보다는 적어도 상대방이 나와 같은 존재임을 인식할 때 시작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군가에게 존중을 받아 본 적이 없기에 자신이 받은 대로 다른 사람을 대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만연한 폭력이나 공격성은 존중받지 못한 사람들이 극단에 치달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현상입니다. 우리는 현상만 보고 말세라고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무시당하고 소외당하다 견디지 못해 폭발하지 않도록 도와주고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인지를 분명히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인간다움의 맛을 잃어버린 세상에 인간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느끼게 해주고 보여줄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인간다움을 못 느끼고 살아가는 어둠 가운데 있는 수많은 영혼을 향해 우리가 받은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가갈 때 생명의 빛이 비치기 시작할 것입니다. 나는 지금 다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바라보고 대하시듯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교회창립 1981년 10월 24일

한 마당 연합 감리 교회

Han Madang United Methodist Church



담임목사(Pastor) 이송원 목사(Rev. Songwon Lee)
반 주 자(Pianist) 기길숙 성도

7800 West Pleasant Valley Road, Parma, OH 44130

☎ 교회: (440)845-1728 / 사택 (330)388-2814

E-mail : hanmadang@gmail.com

웹사이트 <http://www.hanmadang.org>